

대학생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김은희 (인하대학교)

I. 서론

대한민국 공교육의 철학을 제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은 ‘더불어 사는 사람’과 ‘공동체 역량’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영순, 2017). 이상의 국가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소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타자화된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지원사업으로, 대학생 멘토와 멘티학생이 지속적으로 만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 다문화 멘토링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멘토와 멘티의 참여 경험 및 멘토의 역량, 프로그램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맥락화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 사례를 제시하는 데 머무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연구물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이며 새로운 해석과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나장함, 2008a)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II. 다문화멘토링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한국의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8%에 해당하며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0). 그러나 학교진학률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다문화학생의 학력부진과 학업중단, 진학·진로 문제가 다문화 교육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조인제·김다영·홍명기, 2020). 상급학교에서의 학업중단률은 사회진출 및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있어 대표적인 어려움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능력은 초·중등에 관계없이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 경험이나 활동 참여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학교 수업 이외의 학습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지원이 요구(오성배·김성식, 2018)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다문화·탈북학생¹⁾멘토링이다.

다문화 멘토링은 멘토 대학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을 1:1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장학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 대책과 함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06). 멘토는 멘티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모델과 피드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행에 대한 반성과 격려를 위하여 멘토에게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 지도가 요구된다(이성순, 2014).

1) 정식 명칭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이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탈북도 다문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다문화 멘토링’이라 하였음.

III. 연구방법

1.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연구 주제나 상호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질적 연구물들을 일관된 논리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구조 발견과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방법이다(조혜영, 2019). 개별 연구들은 상이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결정자와 해당 연구 영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나장함b, 2008). 질적 메타분석은 개별연구 결과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단일 연구가 밝히기 어려운 통찰과 함께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제공한다(김호현 2018). 개별 사례중심을 극복하여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Sandelowski, 1997) 기존 연구물들이 제시하는 결과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얻어내어 보다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유용성이 드러나 점차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나장함, 2008). 현재 질적 연구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멘토링과 관련하여서는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멘토링 참여 경험과 관련된 질적연구물의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멘토링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및 대상

질적 메타분석은 ①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연구주제 탐색과 연구문제 설정 ②적용 연구물 선정 ③개별 연구물의 해석적 비유와 관련 주제와 개념을 탐색하는 개별 연구 내 분석 ④개별 연구 내 분석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중심개념 및 주제 도출 ⑤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해석 가능성과 이론 생성의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나장함, 2008; 이정애·김시아·김지선, 2019)를 참고하여 연구물을 선정, 분석, 종합하였다. 다음 <표 1>은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표 1> 연구물 선정 과정 ② 단계

선정기준/검색어	멘토링	멘토	대학생
RISS/ 국내학술지 대상/ KCI등재(후보)지 이상	1,252건	844건	26,389건
결과내 재검색: “다문화”	89건	59건	308건
1차 배제 기준: 효과, 상관관계 등의 양적연구물	24건	25건	21건
2차 배제 기준: 연구 대상 불일치	19건	21건	10건
1차 선정 20건	중복문헌 30건 제외/ 관련 문헌 2건 추가		
최종 선정: 11건	질적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주제와의 유사성 연구참여자의 명확한 진술 여부		

IV. 연구결과

1. 개별 연구대상 분석

<표 3> 개별 연구 내 분석 ③-2단계

연구참여자 진술	원연구자 해석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 다른 멘토들이 실패했던 교육법을 비교하며 업그레이드시킴	중간교육을 통해 멘토간 피드백 , 상호토론을 가지며 자신의 행동 수정
처음엔 부정적 이었음. 티비에서 보니까 어려워보임. 티비에는 부정적 사람만 나온다.	미디어 간접경험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 됨. 극적인 장면을 연출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밀감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 노력.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만들어서 적어보게함	다양한 방법으로 라포를 형성 함.

2. 중심개념 및 주제도출

대학생이 참여한 다문화 멘토링에 관한 11개의 질적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것과 접촉을 통한 사고의 틀과 생활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진술과 원연구자 해석을 토대로 범주화(이주민 자체에 대한 무관심, 미디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정관념과 편견의 작동’으로 주제를 기술하고 이후 기술적 주제 범주 2-3개를 종합하여 핵심 경험을 도출하였다.

(1) ‘만남’을 통한 사고의 전환

멘토들은 다문화가정 경험과 교육봉사, 장학금을 받기 위해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이주민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였으며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돌봄과 배려의 대상, 한국에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겨 다문화 배경을 둔 이주민들을 타자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다문화교육·활동 유형함과 이민자와 친구, 가족, 선생님 등의 관계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남(여성가족부, 2018)과 일치하고 있다.

(2) 타인을 위한 실천의場

멘토링은 타인을 위한 실천의場이 되었다. 멘티와 가까이 지낼수록 유사-가족관계가 형성되어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지도하였고, 친구이자 상담가가 되어 멘티와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갔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티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는 배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멘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활동을 가치있게 여기게 되었다.

(3) 상호문화역량이 함양되는 과정

멘토링은 멘토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호문화역량이 개발되는 교육 효과를 나타내었다. 멘토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차별과 따돌림을 멘티를 통해 추체험함으로써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타문화에 대해 통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통찰은 멘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며 소통하게 하는 등 멘토의 생활세계 양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멘토링은 멘티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멘토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타인과의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상호문화주의의 중심개념이다(장한업, 2014: 121). 멘토링 참여자들은 자신의 세계에 다문화학생을 초대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호문화역량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멘토링 발전을 위한 제안

멘토들은 다문화에 대한 先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를 처음 듣고, 미디어를 통해만 보아왔던 다문화가정 학생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다. 멘토들은 멘토링 시행 전과 과정 중에 멘토를 위한 다문화교육,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등 멘토 교육을 통해 멘토로서 준비되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멘토들은 학습위주로 진행되는 멘토링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기대하지만 복잡한 행정관리로 인해 가장 쉬운 학습멘토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멘토링 중에 겪는 시행착오와 심리적 갈등과 소진을 경험하는 멘토들은 다른 멘토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상호지원을 기대하였으며 멘토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튜터(멘토의 선생님)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멘토링 참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포함과 배제 원칙에 따라 11편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질적 메타분석 단계에 따라 해체와 분석과정을 거쳐 종합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대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 타자를 만나고, 타자와 관계맺고, 타자를 자신의 세계로 초청하는 경험을 하였다. 타인과의 만남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김영순 외, 2018: 54). 멘토들은 학습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세계를 추체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였으며 직접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사고와 태도를 성찰하였다. 성찰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과 표현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에 상호문화역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이병준, 한현우, 2016). 다문화 멘토링은 단순한 교육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시작하여 직장 사회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타인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다문화학습의 현장이다. 다문화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학생과 멘토 학생이 서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보완해야 하며 행정중심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멘토와 멘티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a). 2020년 교육기본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1.05.20.
- 김영순(2017).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양주: 디비북스.
- 김영순, 최영은, 윤희진, 강현민, 갈라노바 딜노자, 윤현희, 김정복, 이영우(2018). 성남: 북코리아.
- 김호현(2018). 영유아 권리와 관련된 교사의 경험과 역할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3), 125-147.
- 나장함(2008a).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2008b).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 정 연구, 26(4), 229-252.
- 오성배, 김성식(2018).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 실태와 영향 요인 탐색, 교육논총, 38(2), 215-234.
- 이병준, 한현우(2016).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11(6), 1-24.
- 이성준(2014).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의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교육과학기술부의 멘토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6, 89-122.
-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65, 23-56.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과주: 교육과학사.
- 조인제, 김다영, 홍명기(2020).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4), 165-184.
- 조혜영(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10(2), 75-105.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Sandelowski, M.(1997). Focus on Qualitative Methods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 365-371.